

# 금당(錦塘) 이재복(李在福)의 불교 활동과 시대 인식

김경집\*

• 목 차 •

I. 서언

II. 출가수행과 불교학 연찬

1. 출생과 출가수행의 과정

2. 불교학 연찬과 현실 인식

III. 개혁 사상의 계승과 대중 활동

1. 불교 개혁사상의 계승

2. 대중불교 활동과 시대 인식

IV. 결어

---

\* 동국대학교 연구초빙교수.

© 『大覺思想』 제41집 (2024년 6월), pp.9-42.

## 한글요약

금당 이재복은 1918년 5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생애 전반부는 출가와 교학 연찬의 시기였다. 15세인 1932년 3월 계룡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0월 계룡산 감사에서 출가한 그는 강원의 전통적인 강학과 혜화전문학교에서 근대식 불교학을 통해 교학 연찬을 하였다. 이때 체계화된 불교 지식은 훗날 역경위원과 대중 설법의 토대가 되었다.

중반부는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대전으로 옮긴 후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기이다. 대전으로 내려온 그는 일본 사찰을 확보한 후 충청남도 불교종무원을 세웠다. 충남불교청년회를 비롯한 여러 신행 단체를 조직한 후 대중불교 활동을 하였다. 그런 노력으로 불교 활동이 미비하였던 대전에 발전의 토대를 세울 수 있었다.

후반부는 1970년 5월 이후 한국불교태고종 수행자로 대중불교 활동에 전념한 시기이다. 전통 강학과 불교학으로 다져진 실력으로 경전을 근거로 한 설법을 하였다. 그런 대중 활동과 더불어 여러 글을 통해 한국불교가 걸어온 길을 진단하고 또한 가야 할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불교에서 많은 종파의 출현이 가져올 질적 저하의 문제, 계율에 벗어난 수행자의 행동, 그리고 불교계 교육기관의 부족을 거론하며 불교계의 인식 전환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재복은 근, 현대에 걸쳐서 일제의 한국불교 통제를 경험하였고, 광복 후 현대사회에서는 급박하게 변화되고 다양한 종교가 경쟁하는 현실을 목격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불교가 지켜야 할 가치와 가야 할 방향을 예단한 선지식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 주제어

이재복, 감사, 흥법 강원, 혜화전문학교, 충남불교청년회, 포교 활동, 태고종

## I. 서언

금당 이재복(1918~1991)에 관해서는 교육자로서의 평가가 많았다. 1945년 12월 대전 보문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교장을 역임하였다. 그 외에도 공주공립중학교 교사, 홍성공립농업중학교 교사, 공주사범대학 전임강사 등을 지내며 인생 대부분을 교육에 전념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이력으로 인해 지금까지 불교인 이재복의 교학 연찬과 불교 활동에 대해서는 간과된 면이 많다. 그는 15세인 1932년 10월 계룡산 갑사에서 이혼허(李混虛)를 은사로, 김금선(金錦仙)을 계사로 출가한 수행자였다. 강원에서 교학을 연찬하면서 잡지의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아 강원 지역의 중요성과 학인들의 역할을 강조한 학인이었다.

근대 불교 교육의 산실인 해화전문학교에 입학 후에는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불교학을 배웠다. 그런 노력의 결과 1943년 졸업할 때 정근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이렇게 전통적 강학과 근대적 학문을 겸비한 그는 졸업 후 경성불교전문강원 강사로 후학을 양성하였다.

이재복은 대중불교 활동을 전개한 활동가였다. 광복 후 대전으로 옮긴 그는 충남불교청년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어 대전불교 발전에 헌신하였다. 비구, 대처 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1962년에는 비상중회의원으로 선임되어 불교계 갈등 해소와 단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외에도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으로 한글대장경 발간에도 힘을 보탰다. 그런 과정에서도 3천 회에 가까운 법회에서 설법한 포교사였다. 그의 설법은 반드시 경, 율, 론 삼장에 있는 구절을 근거로 삼았다.

그는 여러 글을 통해 한국불교의 혁신을 지적한 개혁가였다. 근, 현대에 걸쳐있는 생애였기 때문에 일제의 한국불교 통제를 경험하였고, 광복 후 현대사회에서는 급박하게 변화되고 다양한 종교가 경쟁하는 현실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런 속에서 한국불교가 지켜야 할 가치와

가야 할 방향을 예단한 선지식이었다.

그런 활동과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의 불교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비구, 대처 간의 갈등 이후 태고종에 소속된 그의 활동에 주목하지 않았고, 대전에서 활동한 그의 이력 역시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그가 발표한 글을 살펴보면 누구보다도 한국불교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있다. 종단 소속과 지역적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한국불교의 좌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글을 통해 현대불교의 초석을 놓은 그의 불교 활동은 조명되어야 한다.

## II. 출가수행과 불교학 연찬

### 1. 출생과 출가수행의 과정

2009년 발간된 전집 1권에 있는 이재복의 연보를 보면 출생과 유년기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18년 5월 충남 공주군 계룡면 중장리에서 아버지 이정선(李正善)과 어머니 이래덕(李來德) 사이에서 3남으로 태어났다. 생후 6개월 만에 아버지와 두 형을 잃었다.

8세인 1925년 3월 계룡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다음 해 몸이 아파 휴학하고 10세인 1927년 복학하여 1932년 15세에 졸업하였다. 그 후 공주공립고등학교[공주고보-현 공주고]에 입학하였고, 일본 동경부 중학교 통신 강의 3년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리고 1932년 10월 이혼허를 은사로 하고 김금선을 계사로 하여 계룡산 갑사에서 출가하였다. 이후 공주에 있는 학문 서숙에서 한학을 학습하기 시작하여 1935년 7월 7서를 수료하였다.<sup>1)</sup>

이와 같은 이력은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 연보에는 3남으로 태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본인이 쓴 글을 보면 다소 다르다. 탄생 6개월이 지난 뒤 왜고뿔 감기통이<sup>2)</sup> 온 동네에 만연하였다. 그때 형 4명과 아버지가 이를 만에 돌아가셨다. 말하자면 나는 주검 위에서 탄생하였고 우리 어머니로 보면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전날 저녁에는 다 키워놓은 자식 넷을 잃었다고 적고 있다.<sup>3)</sup>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연보에 따라 3남으로 기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서술한 내용처럼 5남으로 기록하여야 하는지 후손의 구술과 자료보완이 필요하다.

공주공립고등학교 입학, 통신 강의, 그리고 출가 등이 한 해에 겹쳐 있다. 시기적으로 공주공립고등학교 입학이 먼저이다. 보통학교 졸업은 1932년 3월이다. 일제강점기 학교 입학은 4월에 했으므로 그전에 입학 시험을 치렀다. 합격은 했으나 가정 형편상 다니지 못했다. 아버지가 의협심이 강하고 술과 노름을 좋아하여 집안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안이 몰락하여 집과 전답을 팔 수밖에 없었고, 이집 저집 신세를 졌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sup>4)</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출가를 결심하였다. 전집 8권 추모·유품집에 실린 사진을 보면 1940년에 받은 계첩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932년 10월 8일 갑사 출신으로 본산인 공주 마곡사에서 계를 받았다.<sup>5)</sup> 전집 1권의 연보에 보면 1936년 8월 마곡사에서 5년간의 수선

1)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연보」,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집,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34.

2) 1918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스페인 독감을 말한다.

3) 이재복,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법」,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집,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442.

4) 이재복, 위의 논문, p.443.

5)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8집,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299.

안거를 마쳤다고 적고 있다.<sup>6)</sup>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출가 후 마곡사에서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출가 다음 해인 1933년부터 사찰 후원을 받아 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제 막 출가한 이재복에 대해 출가 사찰인 감사와 본산인 마곡사에서 선뜻 진학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대안으로 통신강좌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 동경부 중학교 통신 강의는 1932년 수료가 아니고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거나 아니면 출가 후인 1933년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sup>7)</sup>

집안 사정과 진학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출가와 같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고려할 때 통신 강의 3년 과정은 1932년보다는 1933년 시작해서 1935년에 수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연보를 보면 1935년 7월 10일 공부 한문 서숙에서 유가 경전 7서를 수료하였다. 이후 1936년 8월 22일 공주 마곡사에서 5년간 수선(修禪) 안거를 성취하였다. 그 사이 대승사, 대원암(서울), 봉선사, 김용사(문경) 강원에서 공부하였다. 1937년 2월에는 공주 마곡사 강원 사집과를 수료하였다. 1939년 2월 공주 마곡사에서 사교과를 졸업하였고, 경성부 사간동 법륜사 박대륜 스님의 문하에서 법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1940년 5월 10일 중앙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한 것으로 적고 있다.<sup>8)</sup>

이런 기록으로 볼 때 1932년 10월 마곡사에서 계를 받고 그곳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주에 있는 한문 서숙에서 1935년 7월

6)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연보」,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집,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35.

7) 출가가 10월이기 때문에 다음 해 1933년부터 통신 강의를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8)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연보」,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집,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35.

유가 7서를 모두 배웠다는 것으로 볼 때 마곡사에서 한문 서숙을 다니며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마곡사에는 강원이 있어 교학 연찬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한문 서숙을 다닌 것은 한학에 대한 열정으로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선 안거를 하면서 몇 개 사찰의 강원에서 연찬하였다는 기록이다. 위에서 말한 사찰은 1938년 발간된 잡지에 강원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sup>9)</sup> 그런 까닭에 1936년에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강원교육은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그리고 대교과 4단계였다.<sup>10)</sup>

사미과는 사집과의 예비적 성격과 함께 율신(律身)의 법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심계를 받아 아침저녁으로 송주(誦呪)하면서 『반야심경』과 『초발심자경문』 등을 익혔다. 그 후 시간이 늘며 『사미율의』, 『치문경훈』, 『선림보훈』 등을 추가해서 배웠다. 사집과는 간경(看經)의 기초를 습득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선원제전집도서』, 『대혜서장』,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그리고 『고봉선요』 등을 배웠다. 사교과는 주로 경전을 습득하는 것으로 『수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반야경』, 『원각경』 등을 배웠다. 대교과는 화엄과 염송을 수학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화엄경』, 『선문염송』, 『경덕전등록』을 배웠다.<sup>11)</sup> 이러한 단계와 교과목은 오늘날 강원까지 이어졌다.<sup>12)</sup>

강원의 각 단계 연찬 기간은 1년 이상이었다. 연보에서 말한 것처럼 수선을 하며 여러 곳의 강원에서 교학 연찬을 하기는 쉽지 않다. 앞에서 말한 여러 사찰 가운데 봉선사의 경우 그곳에서 발간된 『홍법우(弘法友)』에 이재복은 1938년 2월 사교과를 졸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13)</sup> 그가 마곡사에서 사집을 공부한 후 봉선사로 옮긴 이유는 홍법강원의

9) 「전조선강원학인명부」, 『홍법우』 제1집, 홍법강우회, 1938, pp.73-92.

10)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하, 신문관, 1918, pp.989-990.

11) 남도영, 「한국 사원교육제도(상)」, 『역사교육』 27, 역사교육연구회, 1980, p.29.

12) 남도영, 위의 논문, p.37.

13) 「전조선강원학인명부」, 『홍법우』 제1집, 홍법강우회, 1938, p.92.

명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조부터 교종의 대표적인 사찰이 봉선사였고, 당대 교학에 대한 능력과 명성이 출중하였던 운허가 당시 홍법강원의 강주를 맡고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 인연으로 봉선사에 가서 사교과를 마쳤는데 다시 공주 마곡사에서 이 과정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었을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1937년 2월 마곡사 사집과를 졸업한 이재복은 봉선사 홍법강원에서 사교과를 공부한 후 1938년 2월 졸업한 것으로 볼 때 1937년 3월 이후 봉선사에서 생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재복 전집 8권 299 페이지에 게재된 수료증서 44호를 보면 서울 사간동 불이성 법륜사에서 사교과 교과 가운데 반야경 전부를 배우고 수료증을 받은 것이 1937년 4월 15일이다.<sup>14)</sup>

여기서 말하는 반야경 전부가 반야부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어도 반야심경만 지칭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2개월 동안 반야부 경전을 모두 배운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반야경 하나를 배우고 수료증을 받는 것도 어색한 일이다. 그렇다면 1937년 2월 사집과 수료가 잘못된 기록일 수 있지만 그 뒤 봉선사 홍법강원 사교과 수료 역시 1938년 2월 15일인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강원이 이 무렵 수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마곡사 사집과 수료는 1937년 2월이고, 사간동 법륜사 반야경 수료는 마곡사 강원 수료 후에 봉선사 홍법강원에서 사교과를 배울 초기 이곳을 왕래하며 연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보에는 1939년 2월 경성부 사간동 법륜사에서 박대륜의 문하에서 법제자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법륜사에서 반야경 전부를 배우고 수료한 것이 1937년 4월 15일이면 박대륜 스님의 법제자가 된 것 역시 그 전이거나 그 무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수료 후 연보에 적혀

14)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8집,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299.

있는 것처럼 그 무렵 법제자가 되었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다. 그러나 대개 수업을 받으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상례로 볼 때 그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연보에 따르면 1940년 4월 혜화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1940년 5월 10일 중앙불교전문강원의 대교과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5월 23일 공주 마곡사 불교전문강원 강사에 취임하였다.<sup>15)</sup>

중앙불교전문강원은 서울 개운사의 대원암에 있었던 강원을 말한다. 1928년 불교전수학교(佛敎專修學校)가 개교하였고 승격 운동을 거쳐 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中央佛敎專門學校)가 되었다. 그 후 중앙불전은 1940년 재단법인의 이름을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에서 재단법인 조계학원으로 바꾸고 혜화동에 학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름을 혜화전문학교로 하였다.

박한영은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별도의 강원을 두고 학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곳을 대원강원이라 하였고 전문 강사를 맡았다.<sup>16)</sup> 그런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이재복은 대원강원에서 대교과를 공부하면서 혜화전문학교 입학하였고, 4월 입학식에 이어 5월 대교과를 수료한 것이다.

그 후 5월 공주 마곡사 강원의 강사로 취임하여 학인을 교육하였다면 혜화전문학교 학업과 겹치므로 두 가지 일을 병행한 것이 된다. 전문학교 교과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교과목이 많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학기 도중 마곡사를 왕래하며 강사로 학인을 교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강원에는 외과 강사를 두고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다.<sup>17)</sup> 그렇다면 이재복 역시 방학을 이용하여 마곡

15)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연보」,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집,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35.

16) 「전조선강원학인명부」, 『홍법우』 제1집, 홍법강우회, 1938, p.92.

17) 「전조선강원학인명부」, 『홍법우』 제1집, 홍법강우회, 1938, p.74.

사 외과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 2. 불교학 연찬과 현실 인식

이재복이 사교과를 공부한 봉선사 홍법강원은 1933년 홍월초가 설립하였다. 그는 봉선사 제1세에서 제5세까지 주지를 지낸 인물이었다. 입적하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봉선사에 유족한 후 강원 설립과 운영 경비에 쓰도록 하였다. 이때 희사된 재원은 토지 26,059평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불교 포교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세웠다.<sup>18)</sup>

그런 배경으로 1933년 2월 19일에 설립된 홍법강원에서 젊은 청년에게 경론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쳐서 불타의 해명을 발전시키고, 또한 한국불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서원하였다.<sup>19)</sup>

홍월초가 교육기관 설립을 원했던 것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불교 발전의 토대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인식은 명진학교 설립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홍월초가 회장으로 있던 불교연구회는 1906년 명진학교를 세웠다. 불교인들의 염원으로 세워진 근대적 교육기관이어서 처음 신입생을 뽑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 통문을 각도 수사찰에 보내어 학생 2명씩만을 선발해달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입학하고 싶어 도 하지 못했다. 입학이 어려웠던 만큼 학업 과정도 어려웠다. 그런 까닭에 소수의 정선된 졸업생만이 사회에 배출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한국불교의 모순을 척결하고자 하는 개혁의 의지를 지니게 되었고, 그러한 사상이 불교를 근대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sup>20)</sup>

18) 김달생, 「홍법강원에 대하여」, 『홍법우』 제1집, 홍법강우회, 1938, p. 34.

19) 봉선사종무소, 「강원 경원자 측으로서 학인예의 기대」, 『홍법우』 제1집, 홍법강우회, 1938, p.19.

20) 남도영, 「구한말의 명진학교」, 『역사학보』 제90집, 역사학회, 1981,

홍법강원에 특징에 대해 김달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먼저 법의를 항상 수하며 위의를 존중하는 것이었다. 그의 부연 설명에 의하면 다른 강원의 경우 하는 곳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이런 자세는 모든 강원에서 본받을 만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모든 구성원이 매일 1시간 정도 운력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특징으로 불 때 교학 연찬과 함께 승가의 공동체 생활을 철저하게 실행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21)</sup>

그런 목적과 과정을 거쳐 설립된 봉선사 홍법강원 학인들의 명칭을 홍법강우회(弘法講友會)라 하였다. 그들은 교학 연찬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 의식을 가졌다.

우리 학우들은 확호(確乎)한 자신과 건전한 역행(力行)과 강인한 결심과 원대한 서원으로 고덕노사(古德老師)를 본받아 적극적 활동과 헌신적 노력을 가하여 마음으로 학문을 닦고 몸으로 만행(萬行)을 행하여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과 선입오탁(先入汚濁)의 실행으로 제불조사의 혜명을 잇고 육도 중생의 고뇌를 발제(拔除)하여야 할지니 이것이 불은을 보답하며 월조선사의 홍법강원을 설립한 본의를 체창(體暢)함이며 아울러 우리의 속제를 성취함이며 우리의 사명을 다함이 될 것이다.<sup>22)</sup>

이재복은 마곡사 강원에서 홍법강원으로 옮겨 사교과를 연찬하였다. 당연히 홍법강우회 회원이 되면서 재무위원과 문예위원을 맡았다.<sup>23)</sup> 훗날 그가 입적하자 그의 문재(文才)에 대해 문장도 아름답고 글씨 또한 빼어났다고 추모할 정도였다.<sup>24)</sup> 수많은 시와 글을 남긴 그의 재능을 알 수 있는 평가이다.

pp.118-121.

21) 김달생, 「홍법강원에 대하여」, 『홍법우』 제1집, 홍법강우회, 1938, pp.34-35.

22) 송병언, 「홍법우의 사명」, 『홍법우』 제1집, 홍법강우회, 1938, p.55.

23) 『홍법우』 제1집, 홍법강우회, 1938, p.2.

24) 조영암, 「곡 용봉 이재복 학장」,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8권,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21.

그런 활동을 거치며 1938년 2월 사교과를 마쳤다.<sup>25)</sup> 전서 8권 299페이지에 게재된 수업증서에 보면 수료일이 1938년 2월 19일로 되어 있다. 당시 주지는 김송월이었고, 강사는 이용하 즉 운허였다.

홍법강원 시절 문예적 자질이 높았던 이재복은 1938년 3월 홍법강우회가 자신들의 소식지 『홍법우』를 제작할 때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아 제1집을 발간하며 한국에 있는 모든 강원이 자신들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관지 발간을 기대한다고 하였다.<sup>26)</sup>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홍법우』 제1집은 이재복의 기획하에 편집되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의 현실 인식과 안목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홍법우』가 담고 있는 내용을 통해 당시 한국불교 강원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먼저 홍법강원의 원칙과 강령 그리고 임원 조직 등은 게재하여 1930년대 강원 조직과 운영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전국에 있는 32개 강원과 학인 662명의 성명과 연령 그리고 소속 사찰 등을 각각의 과별로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어 1930년대 중반 한국불교 교학 연찬의 현황을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다. 기획력이 뛰어난 편집자 이재복의 안목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와 같은 강원의 소식은 물론 서두에 당시 불교계 석학들의 글을 통해 당시 한국불교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점 역시 시대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봉선사에서 사교과를 마친 이재복은 대교과는 중앙불교전문강원에서 수료하였다. 이곳은 서울 개운사 대원암에 있는 대원강원으로 석전 박한영이 이끌고 있었다. 석전은 이재복의 재기(才器)를 알아보았다. 이를 혜화전문학교에서 동문수학한 조영암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25) 「전조선강원학인명부」, 『홍법우』 제1집, 홍법강우회, 1938, p.92.

26) 「편집실 후문」, 『홍법우』 제1집, 홍법강우회, 1938, p.99.

대원암 강당에서 재복 학인이  
석전 대강백께 큰 칭찬 받았어라  
앞으로 이 나라에 크신 강사 나온다고<sup>27)</sup>

1940년 5월 11일 이재복은 대교과를 졸업하였다.<sup>28)</sup> 1940년 7월 『경북불교』 제36호에 대원암 강원 제17회 졸업생 명단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조선 불교계의 유일한 대강주 박한영 스님을 모시고 만장홍진(萬丈紅塵)을 씻을 만도한 신선한 공기 속에 수다라·비나야의 순진 불법을 논담하는 곳이 있다면 누구나 먼저 동대문 밖 개운사의 대원암 강원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석전 노사의 순순(諄諄)하신 교회(教誨)와 인호(仁浩) 감원의 경건한 공궤(供饋)로서 동서원방 자래의 종사 학도가 온전히 오교의 일대교전을 수료함이 제제다사(濟濟多士)이었으며 노사 그의 업적을 감히 말할 수 있으랴!

이제 또 지난 5월 11을 기하여 일대시교를 독파한 착실한 청년 강사를 우리 교계에 내어 놓게 되는 제17회 졸업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금번 졸업생 제군은 모두 다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객실(客實) 공히 재사달식(才士達識)이 많다 한다. 이제 졸업생의 성명을 들어 보면 다음과 여하다더라. 이재복(갑사)·성기실(심원사)·김운애(봉선사)·김진운(청암사)·신호동(화엄사)·김희석(은적사)·최덕립(백양사)·정문학(백양사) 이상 8명.<sup>29)</sup>

1938년 2월 흥법강원 사교과를 졸업한 후 바로 대원강원 대교과로

- 
- 27) 조영암, 「곡 용봉 이재복 학장」,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8권,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20.  
28)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연보」,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집,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35.  
29) 「개운사 대원강원 제17회 졸업식」, 『경북불교』 제36호, 경북불교협회, 1940, p.3.

갔다면 2년 정도 수학한 것이 되지만 이곳에서 6년을 공부하였다고 자술하고 있다.<sup>30)</sup> 그런 전후 관계로 볼 때 이재복은 이곳에 머물며 경전 공부와 함께 해화전문학교를 다닌 것으로 보인다.

대교과에서 교학 연찬을 마무리하던 이재복은 불교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다. 틈틈이 진학 준비를 하여 1940년 해화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그전까지 중앙불교전문학교였지만 1940년 3월 중앙교무원 정기평의원회의에서 교명 변경이 논의되어 해화전문, 흥아전문, 그리고 동양전문 가운데 해화전문으로 의결되었다. 지금까지 불교과 단과였던 체제에서 50명 정원의 흥아과가 신설되었다. 교장도 박한영에서 일본인 타카하시도오루(高橋亨)로 바뀌었다.<sup>31)</sup> 그리고 1940년 6월 10일 최종적으로 인가되었다.<sup>32)</sup>

해화전문 교과과정은 중앙불전과 거의 비슷하였다. 중앙불전의 불교학 관련 35학점, 철학·종교·윤리 관련 24학점, 교육법학과 경제·사회학 관련 10학점, 국어·한문·영어 관련 23학점, 그리고 체조·음악 관련 4학점이었다. 1학년 때 자연과학개론 1학점을 배우도록 하여 모두 100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해화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여기에 더해 수신, 일본학, 동양사, 지나어 등이 추가되었다. 불교학 및 동양 문화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전통을 계승하였다.<sup>33)</sup>

지금까지 전통적인 강원에서 내전만 공부하던 이재복에게 있어 해화전문학교 학업은 한국불교를 넘어 세계정세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 출신들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포교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 역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해야 하는지 숙려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

30) 이재복, 「대승불교사상 1」,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집,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52.

31) 「중앙불전의 일대 혁신」, 『경북불교』 제36호, 경북불교협회, 1940, p.3.

32) 「동아일보」 1940.06.12.

33) 동대철십년사편집위원회, 『동대철십년사』, 동국대출판부, 1976, pp.297-306.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학업에 대한 노력은 남달랐다. 그 결과 1943년 9월 혜화전문학교에서 2년간의 정근상을 받았고, 또한 조선 불교조계종이 수여하는 우수상을 받았다.<sup>34)</sup> 혜화전문학교 동문인 조영암은 학창 시절의 이재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혜화전문 학교 웅달샘터 우물가에  
유도복 입고 앉아 샘물에 점심들새  
청운의 높은 꿈들이 오락가락하였지  
혜화전문 삼년 동안 한결같은 수석이라  
용봉은 그때부터 높은 뿔 뺐어났지<sup>35)</sup>

1943년 9월 25일 혜화전문학교를 졸업한 이재복은 불교계와 문학계 인사와 교류하면 창작에 몰두하였고, 10월 10일부터 경성불교전문강원 강사로 활동하였다.<sup>36)</sup>

### III. 개혁 사상의 계승과 대중 활동

#### 1. 불교 개혁 사상의 계승

근대식 불교 교육을 이수한 이재복은 광복 후 대전의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한편 한국불교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 
- 34)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연보」,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집,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299.
- 35) 조영암, 「곡 용봉 이재복 학장」,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8권,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20.
- 36)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연보」,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집,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36.

6·25 사변 이후 야기된 비구, 대처의 갈등이 일어나자 비상재건회의에 참여하여 한국불교가 걸어가야 할 방향 정립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1957년 ‘한국불교의 포교 방향’이란 글을 발표하였다.<sup>37)</sup> 이 글은 현재 전집 7권에 실려 있다. 길지 않은 글이지만 한국불교 개혁 방향에 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1910년대와 1920년대 한국불교에서 제시된 개혁 사상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그 뜻을 계승한다는 시대적 의의가 있다.

근대 한국불교의 모순을 타파하고 새로운 혁신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개혁론이다. 그 개혁론의 서두는 1912년 4월부터 『조선불교월보』에 연재된 권상로의 ‘조선불교개혁론’이다. 그 후 1913년 5월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이 단행본으로 발표되면서 불교혁신에 대한 분위기는 최고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1922년 조선일보에 발표된 이영재의 ‘조선불교혁신론’에서 불교의 쇠퇴는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데에 있으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바른 믿음이 한국불교 개혁의 무기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함으로써 3·1운동 이후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되었던 좌절감 속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불교계에 하나의 좌표를 던져주었다.<sup>38)</sup>

이와 같은 근대 개혁론들은 현실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과 제도 개선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맞는 포교 방법을 제안하며 한국불교 발전을 도모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재복은 퇴경과 만해를 존경하였다. 한용운이 대중불교를 제창한 것을 추앙하였으며, 퇴경 권상로와 같은 석학의 학식을 따르고자 하였다.<sup>39)</sup> 따라서 그가 발표한 글에서 퇴경, 만해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개

37)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연보」,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집,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39.

38) 김경집, 『한국 근대불교사』, 경서원, 1998, p.277.

39) 이재복, 「해방 40년 불교 무엇이 달라졌나」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권,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혁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는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轉換點)에 서 있다. 이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은 불교의 현대화와 불교의 대중화에 관한 문제이다. 그것은 우리 한국불교 포교의 현황이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너무나 빈곤하고 너무나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가 외쳐진 지도 이미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도시 속에서 법회가 몇 번 더 열리고, 학생과 청년들이 법회에 좀 더 모이게 됐다고 해서, 불교의 대중화현대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불교의 현대화대중화는 모두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포교의 실제에 있어서 불교를 전하는 그 방법은 옛날 옛적 답답한 그대로가 오늘날에도 그냥 답습되고 있음을 볼 때,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한국불교의 포교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가장 요긴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탐색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sup>40)</sup>

그가 제시한 한국불교 개혁의 첫 번째는 올바른 신행 자세였다. 종래의 기복 중심의 불교는 교리 중심의 불교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는 동시에 한국불교의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온갖 무속적 요소는 마땅히 소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붓다의 교화 정신은 인간의 자각 정신에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붓다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쉽고 바르게 전달할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sup>41)</sup>

앞선 개혁론 역시 그런 점을 지적하였다. 불교의 가르침은 시대에 뒤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을 믿고 실천해야 할 불자들의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탓이다.<sup>42)</sup> 따라서 신앙에 있어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대상은

pp.396-399.

40) 이재복,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권,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427.

41) 이재복, 위의 논문, p.428.

42) 김정집, 「권상로의 개혁론 연구」, 『한국불교학』 제35집, 한국불교학회,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3)</sup>

이재복이 제시한 두 번째 개혁안은 모든 법요 의식에 쓰이는 축원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식문 모두 우리말로 되어야 하고, 모든 의식과 그 절차 역시 모두가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sup>44)</sup>

앞선 개혁론 역시 의식의 간소화에 대해 변화를 주장하였다. 우선 혼란해서 진실성을 잃고 있는 대소의 의식을 막론하고 하나의 간결한 의식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사찰 재원의 확보나 승려의 생계를 이유로 해서 번잡하게 재공양(齋供養)과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근본을 잃어버리고 지엽적인 문제에 당착하는 것이다.<sup>45)</sup>

세 번째는 포교용 교재의 제작이다. 설교집·예화집 같은 포교 서적은 물론 궤도슬라이드·영화음반 등 현대감각에 맞는 시청각 교재와 각종 간행물이 제작 유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6)</sup>

1920년대 이영재의 경우 권상로와 한용운보다 문서포교를 강조하였다. 문서포교는 능히 수천 인의 순회 포교와 같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도 상호 간의 연락과 안내를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여론을 수렴하는 데 편의가 있으므로 포교 기관에서 잡지나 소책자 그리고 포스터 등을 이용한 문서포교에 시야를 돌려야 할 시기임을 말하였다.<sup>47)</sup>

네 번째는 대중매체의 활용이다. 현대는 매스컴이 지배하는 사회이

1999, p.412.

43) 김경집, 「이영재의 불교혁신사상 연구」, 『한국불교학』 제20집, 한국불교학회, 1995, pp.577-578.

44) 이재복,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권,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428.

45) 김경집, 「이영재의 불교혁신사상 연구」, 『한국불교학』 제20집, 한국불교학회, 1995, p.581.

46) 이재복,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권,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428.

47) 김경집, 「이영재의 불교혁신사상 연구」, 『한국불교학』 제20집, 한국불교학회, 1995, p.594.

다. 따라서 매스컴을 많이 이용하여야 한다. 텔레비전·라디오의 방송국과 일간 신문사 설립은 아직 힘들어도 대중매체의 포교를 위해서는 남의 시설을 이용하여 활발하게 포교하여야 한다.<sup>48)</sup>

이 글이 발표된 시기가 1957년이다. 불교계에 불교방송국(BBS) 설립은 1990년, 주식회사 불교TV(BTN)가 설립된 것은 1992년이다.<sup>49)</sup> 이런 면모로 볼 때 대중매체에 대한 제언은 이재복의 혜안이 돋보이는 개혁관이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포교사의 양성 및 포교사의 재교육이다. 이재복은 인간의 정신, 인간의 품성, 인간의 문제해결을 상담하고 지도한다는 포교사는 그야말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교양과 덕망, 그리고 교화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수의설법(隨宜說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포교사는 의사나 법관과 같이 하나의 전문직이다. 전문직에 따르는 수련과 재교육이 변천하는 사회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sup>50)</sup>

인재 양성은 앞선 개혁론에서 강하게 주장된 내용이다. 권상로의 경우 교리에 밝지 못하면 참선도 맹방치할(盲棒痴喝)에 불과하고 전도와 포교도 헛소리나 잠꼬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리를 아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교리를 밝히고자 하면 반드시 공부하는 사람을 양성해야 하며, 공부하는 사람을 양성하고자 하려면 반드시 교육기관을 개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1)</sup>

한용운은 현재 불교계에 있어 스승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사리를 판단하는 일이 서투른 상태이다. 마치 귀머거리

48) 이재복,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권,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429.

49) 김정집, 『한국불교통사』, 운주사, 2022, p.311.

50) 이재복,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권,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429.

51) 김정집, 「권상로의 개혁론 연구」, 『한국불교학』 제35집, 한국불교학회, 1999, p.420.

가 음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눈먼 소경이 그림을 대하듯 캄캄한 지경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후배가 그 전철을 밟는다면 한국불교의 암울한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15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승려들 가운데 재주와 덕이 있는 자를 가려서 교육하여야 한다. 그들의 수준에 따라 일반인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상승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sup>52)</sup>

이영재 역시 포교사 양성을 강조하였다. 교계 내에 교육기관이 갖추어져 해마다 포교를 담당할 인물을 배출해야 하지만 체계가 세워지기 전까지 임시로 포교사 양성기관을 설치해서 승려나 신도 중에서 마땅한 인물을 선발하여 포교사로 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각 지역으로 파견하여 통일된 형식으로 포교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자격도 없고 역사 의식도 없는 인물을 마구잡이로 채용하여 포교의 큰일을 그르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sup>53)</sup>

여섯 번째는 한국불교 화쟁 방향의 제시이다. 이 제안은 앞서 발표된 개혁론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다. 광복 이후 비구, 대처의 갈등을 지켜보며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되어야 한국불교에 도움이 될지 고민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불교의 각 종파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같은 불자인 까닭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너그럽게 흉금을 열고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섭하고 서로 협력하는 길만이 이 땅에 한국 불교의 중흥을 하루빨리 다가오게 하는 지름길이다.

우리 불자들이 다 같이 경계해야 할 일은 모두가 자기의 선입견에 얽매는 일이다. 자기가 소속된 종파나 자기가 의지하는 교조(敎條) 때문에 다른 종파를 처음부터 외면해 버리는 태도는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체의 편견과 집착을 배제하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승가상

52) 김경집, 『한국 근대불교사』, 경서원, 1998, p.311.

53) 김경집, 「이영재의 불교혁신사상 연구」, 『한국불교학』 제20집, 한국불교학회, 1995, p.593.

을 형성한 후 포교의 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sup>54)</sup>

현대불교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1954년부터 시작된 비구, 대처 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명분은 승가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었지만 세간에 비친 모습은 폭력과 소송으로 얼룩진 싸움이였다. 이재복은 1962년 2월 불교재건비상종회(佛敎再建非常宗會) 30인 가운데 법륜사 측 15인에 선출되었다.<sup>55)</sup> 불교재건비상종회는 1962년 2월 12일 하오 3시 조계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의장에 이청담(비구측)을 부의장에 조용명(대처측)을 선출하였다. 이날 선출된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총무 이남채(대처측), 교화 이재복(대처측), 재정 안홍덕(대처측), 법규 손경산(비구측), 심사 윤월하(비구측)이었다.<sup>56)</sup> 이때 이재복은 법규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볼 때 그의 능력이 출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57)</sup>

불교재건비상종회는 2월 12일 개회식을 하고 종단 이름을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하는 등 종명과 종지에 합의하였다.<sup>58)</sup> 이 과정에서 승려 자격을 놓고 서로의 기득권을 주장하자 이를 당국에 일임하여 파국을 막고 2월 28일 전문 19장 116조의 중헌을 통과시켰다. 문교부는 승려 자격에 있어 출가자와 독신자만을 인정하였다. 현재 대처승의 기득권을 인정하지만 앞으로 출가독신자만 승려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처승은 출가 독신으로 승려가 되든가 환속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하였다.<sup>59)</sup> 그리고 3월 6일 비구 측 종회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선포되

54) 이재복,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권,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429.

55) 「불교재건위원회 회의 기록」, 『불교정화분쟁자료』, 민족사 1996, p.333. 이재복은 1939년 2월 경성부 사간동 법륜사에서 박대륜의 법제자가 되었다. 그곳은 유점사 경성 포교당이었기 때문에 소속 사찰을 유점사로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56) 「동아일보」 1962. 02. 13.

57) 대한불교조계종, 『종단 50년, 기록과 대화하다』, 조계종출판사, 2012, p.54.

58) 「동아일보」 1962. 02. 21.

59) 「경향신문」 1962. 03. 11.

었다.

대처 측이 반발하자 문교부는 30명으로 구성된 불교재건비상중회를 해산하고 비구, 대처 양측 5명과 사회 인사 5명으로 비상중회를 개편하였다. 3월 22일 반포된 중헌 일부를 수정한 다음 통과시켰다.<sup>60)</sup> 그리고 3월 25일 수정된 중헌을 재차 확정 공포하였다.<sup>61)</sup> 중앙중회는 62년 4월 1일 새 중정에 비구 측의 이효봉, 총무원장에 대처 측의 임석진을 선출하였다.<sup>62)</sup>

그러나 비상중회는 1962년 8월 3일 비구, 대처 측 5명과 사회대표 5인 그리고 문교부 문예국장 1인으로 재개편되었다. 이어 8월 20일 문교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중회 의원 수를 50명으로 하고 이 가운데 비구 측 32명 대처 측 18명으로 결정하였다.<sup>63)</sup>

그런 결정에 승복할 수 없는 대처 측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8월 18일 중앙중회 개원식에 불참하였다.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임석진은 9월 20일 통합중단 합의를 부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사임하였다.<sup>64)</sup> 불교계는 다시 갈등으로 치달아 대처 측은 10월 4일 지방법원에 중헌 무효 확인 및 중정 부인 확인 소송을 하는 한편,<sup>65)</sup> 비구 측 중앙중회와 달리 불교조계종 총무원이라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를 시작하면서 양측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다.<sup>66)</sup> 이재복은 불교조계종의 총남 총무원장을 맡았다.<sup>67)</sup> 훗날 이재복은 이런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60) 「동아일보」 1962.03.25.

61) 「조선일보」 1962.03.26.

62) 「동아일보」 1962.04.02.

63) 「동아일보」 1962.08.21.

64) 「조선일보」 1962.09.21.

65) 「조선일보」 1962.10.05.

66) 「조선일보」 1962.10.20.

67) 「불교재건위원회 회의 기록」, 『불교정화분쟁자료』, 민족사 1996, p.488.

수련대회에 참석했던 어린 소년이 스님들의 난투극을 보고 그 수련대회를 중단한 채 돌아서며 흘린 눈물과 그 맺힌 명을 누가 풀어줄 것인지는 다시금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다.<sup>68)</sup>

## 2. 대중불교 활동과 시대 인식

이재복은 대전에서 대중불교 운동을 전개한 활동가였다. 그런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불교인은 참 도리를 알면 그걸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세존의 참뜻에 맞는 지 고민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sup>69)</sup>

1943년 9월 혜화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여러 문인과 교류하며 창작 활동을 하면서 10월부터는 경성불교전문강원 강사로 후학을 양성하였다.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곧바로 대전으로 내려와 충남불교청년회를 조직한 후 회장을 맡아 불교 활동을 전개하였다.<sup>70)</sup>

1945년 10월 대전에 와보니 이곳은 불교에 대한 토대가 전혀 없는 황무지였다. 사찰이라고는 심광사와 보문산에 조그만 절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불교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중교 다리 옆에 있었던 일본불교 정도 진중 동본원사가 세운 사찰을 점유해 그곳에 충청남도 불교종무원을 세웠다. 이곳에 대자불교부인회(大慈佛教婦人會)를 설립한 후 초대 법사를 맡아 법회를 열었다.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발전 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이재복이 공주사범대학에 근무하

68) 이재복, 「해방 40년 불교 무엇이 달라졌나」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권,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397.

69) 이재복, 「불교연수원 일요일회 1000회 기념 설교」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권,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p.409-411.

70)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연보」,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집,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38.

게 되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은 훗날 불교연수원이 들어섰다. 공주에서 다시 대전으로 온 그는 불교연수원 법회에서 자주 법문을하였고,<sup>71)</sup> 불교에 대한 소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여기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체의 모든 편견과 집착을 벗어버린 끝에 자기의 내부에 전개되는 또 하나의 우주-진리의 바다에서 눈을 뜬으로써,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길입니다. 그것은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이나 또는 어떤 가설도 전제되어 있지 않은 가르침이기에, 시대가 어떻게 변천하더라도 퇴색되지 않을 것이며, 자기를 응시하여 똑바로 자기의 내부에서 발견한 ‘진실’이기 때문에 나는 다만 누구에게나 편견 없는 마음으로 인류의 크나큰 스승이신 ‘부처님’ 말씀에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sup>72)</sup>

그의 법문은 철저하게 경전에 근거하였다. 2009년 추모사업회가 주도하여 『용봉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8권이 출판되었을 때 2권에서 6권까지 내용은 경전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내용은 평생 수천 회의 법문에서 활용한 것이다. 경·율·론 삼장을 통관하여 인용한 데서 그의 학식과 법사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그는 많은 경전을 인용하였지만 법문 자체는 알기 쉬운 불교를 지향하였다. 불교의 가르침인 경전의 양이 방대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록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 일반대중의 접근이 어려운 것을 인식하였다. 그런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부터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설법한 것이다.<sup>73)</sup>

그처럼 일반 대중이 어려워하는 한문 경전을 번역하는 사업이 진행

71) 이재복, 「불교연수원 일요법회 1000회 기념 설교」,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권,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p.405-406.

72) 이재복, 「불교, 그 진리의 문」,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권,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480.

73) 이재복, 위의 논문, p.481.

되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통합종단은 역경 사업을 도제 양성, 포교 사업과 함께 3대 사업으로 천명하였다. 경전을 번역하여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종단은 1962년 12월 26일에서 30일까지 열린 제2회 정기 중앙총회에서 역경법을 심의하였다.<sup>74)</sup> 역경법은 수정을 거쳐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역경, 제4장 출판,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었다.<sup>75)</sup> 1963년 2월 13일 기획, 번역, 증의, 운문, 운영, 그리고 유통의 6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역경법은 1963년 2월 28일에서 3월 2일까지 개최된 제3회 임시 중앙총회에서 의결되었다.<sup>76)</sup>

종단은 역경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모색하였다. 동국대 총장 김법린과 운허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동국대 부설 기관으로 동국역경원을 설립하였다. 1964년 3월 1일 역경원장에 운허가 임명되었고 이재복을 포함한 60명의 역경위원이 위촉되었다.

3월 14일 김법린 총장의 타계로 개원식은 7월 21일 열리게 되었다. 상오 10시 각계 인사와 전 역경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원식을 하였다. 이 역경 사업은 30년 계획으로 매달 1권씩 출판하여 팔만대장경 전부를 6백여 권으로 발간하는 계획을 세웠다.<sup>77)</sup>

그런 대중 활동을 지속한 이재복은 1985년 68세 때 ‘해방 40년 불교 무엇이 달라졌나’를 발표하였다. 짧은 글 속에는 격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불교가 걸어온 길을 진단하고 또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하였다.<sup>78)</sup>

74)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 『제1대 중앙총회회의록』, 조계종출판부, 2001, pp.137-138.

75)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 위의 책, pp.157-159.

76)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 위의 책, pp.165-166.

77) 『동아일보』 1964.7.21.

78) 이재복, 「해방 40년 불교 무엇이 달라졌나」,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권,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397.

가장 먼저 광복 이후 한국불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종파의 다변화를 꼽았다. 1908년 한국불교 내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된 원종과 임제종은 총독부의 강요로 1912년 6월 폐쇄되었다. 일제강점기 30본산에서 31본산이 되어 운영되다가 조선불교조계종을 거쳐 광복 후에는 조선불교가 되었다. 그 후 비구, 대처의 갈등 결과 1970년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으로 분종되었다. 그 후에도 여러 종단들이 생겨나 이 글이 발표될 무렵 18개가 되었다. 갑자기 나타난 종파들은 조직과 관리 모두 영세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복은 이런 질적 저하를 지적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한 것은 수행자의 숫자였다. 1941년 당시 6천여 명이었던 수행자는 1972년 모든 종파를 합쳐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보았다.<sup>79)</sup> 실제 한 조사에 의하면 교직자의 증가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sup>80)</sup>

연 도	1957년	1969년	1977년	1987년	1993년
수행자 수	7,342명	14,361명	23,015명	22,109명	30,811명

\* 1926년 7,188명, 1931년 6,638명, 1941년 6,247명

이재복의 예견처럼 불교의 수행자는 수적인 면에서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 가운데 일정한 코스를 거쳐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 학위를 가진 수행자들이 배출되어 활동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내외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수행자의 비리 역시 점점 증가하고 타락의 양상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신심과 정진의 부족을 들었다.

79) 이재복, 위의 논문, pp. 398-399.

80) 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통계편, 고려한림원, 1993, pp.119-208.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청사진』, 포교원, 1995, p.120.

이재복은 천만 명이 넘어가는 신도의 조직적 관리를 걱정하였다.<sup>81)</sup> 앞서 제시된 조사에서 신도 수 역시 증가세였다.<sup>82)</sup>

연 도	1957년	1969년	1977년	1987년	1993년
신도 수	3,855,815	4,943,059	12,906,851	8,059,624	20,985,223

\* 1922년 162,892명, 1931년 141,836명, 1941년 195,269명

2만 명 남짓한 수행자가 천만 명이 넘는 신도를 관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수행자 모두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이 발표된 1985년 무렵 불교계에 수행자 외에 군법사, 교법사, 그리고 포교사 등 새로운 지도자가 배출되는 시대였지만 적절한 신도 관리는 어렵다고 인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교계 교육기관의 부족을 들었다.<sup>83)</sup> 1906년 명진학교 설립 이후 뜻있는 선각자들이 삼보 정재를 투자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을 예로 들며 당시 30여 개의 종립 교육기관이 있어 나름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예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들이 강력하게 도전해 오는 상황에서 불교를 지키기에는 수적으로 뒤떨어졌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과 같은 시설 역시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지적대로 그 무렵은 교육기관의 열세는 현재에도 진행되어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앞의 조사에 의하면 1995년 무렵 종교단체가 설립한 전문학교 이상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84)</sup>

81) 이재복, 앞의 논문, pp. 399-400.

82) 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통계편, 고려한림원, 1993, pp.119-208.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한국불교 증흥을 위한 포교청사진』, 포교원, 1995, p. 20.

83) 이재복, 앞의 논문, pp. 400-401.

84) 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통계편, 고려한림원, 1993, pp.119-208.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한국불교 증흥을 위한 포교청사진』, 포교원, 1995, p.120.

	불 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기 타	계
대학교 및 신학대학	2	29	9	1	1	42
신학교		26				26
전문대학		14	3	1		18
계	2	69	12	2	1	86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비교에서만 보더라도 불교는 기독교와 천주교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형편이다. 그보다 더욱 힘든 상황은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학교 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재복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여 한 국불교의 도약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불교는 해방 후 많은 변모를 가져왔으면서도 아직도 뒤쫓아가는 입 장이다. 사원의 운영이나 음악을 통한 의식에 있어서 변혁, 또는 국제화 시 대에 대처하는 국제적 포교 노력, 사회참여의 봉사활동에 좀 더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그 역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sup>85)</sup>

#### IV. 결어

금당 이재복의 생애 전반부는 일제강점기로 출가와 교학 연찬의 시 기였다. 어린 시절 그는 학업에 대한 열정이 컸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보통학교를 마쳤다. 그 후 공주고등보통학교에 합격 하였지만 진학할 수 없게 되자 감사로 출가하였다. 수행자의 길을 걸으 면서 통신으로 중학 과정을 마쳤고, 불교 연찬에 필요한 한문 공부 역 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

85) 이재복, 앞의 논문, p.401.

그의 불교학 연찬은 강원도의 전통적인 강학과 혜화전문학교에서 근대식 불교학을 수학하였다. 문예의 재질이 뛰어났던 그는 봉선사 흥법강원 학인들의 모임인 흥법강우회에서 문예위원을 맡아 『흥법우』 제1집을 편집·발간하였다. 한국불교에 필요한 강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국에 있는 32개 강원과 학인 662명의 성명과 연령 그리고 소속 사찰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였다. 이것은 1930년대 중반 한국불교 교학 연찬의 현황을 상세하게 전해준다는 점에서 이재복의 시대적 안목을 알 수 있다. 전문학교 학업은 졸업 무렵 정근상과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이었다. 이때 체계화된 불교 지식은 훗날 역경 위원과 대중 설법의 토대가 되었다.

생애 중반부는 대전으로 옮긴 후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기이다.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곧바로 대전으로 내려와 충남불교청년회, 대자불교부인회 등 신행 단체를 조직하였다. 일본불교가 남기고 간 사찰을 확보한 후 삼아 충청남도 불교종무원을 세웠다. 그런 노력으로 불교에 대한 토대가 전혀 없는 황무지였던 대전불교가 발전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1957년 ‘한국불교의 포교 방향’이란 글을 발표하여 자신의 개혁관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근대 제시된 개혁 사상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그 뜻을 계승한다는 할 수 있다. 또한 1962년 비상재건중회 의원으로 비구, 대처 간의 갈등을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등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생애 후반부는 1970년 5월 이후 한국불교태고종 수행자로 대중불교 활동에 전념한 시기이다. 전통 강학과 불교학으로 다져진 실력을 바탕으로 경전을 근거로 한 설법을 펼쳤다. 그런 대중 활동을 지속한 이재복은 1985년 그의 나이 68세에 ‘해방 40년 불교 무엇이 달라졌나’를 발표하였다. 짧은 글 속에는 격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불교가 걸어온 길을 진단하고 또한 가야 할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그 글을 통해 한국불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종파의 다변화를 꼽으면서 조직 자체가 영세할 때 나타나는 질적 저하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다음 수행자의 비리 역시 점점 증가하고 타락의 양상마저 빈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불교계 교육기관의 부족을 거론하며 불교계의 인식 전환을 강조하였다.

## 참고문헌

- 김경집, 『한국 근대불교사』, 경서원, 1998.
- \_\_\_\_\_, 『한국불교통사』, 운주사, 2022.
- 대한불교조계종, 『종단 50년, 기록과 대화하다』, 조계종출판사, 2012.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청사진』, 포교원, 1995.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제1대 중앙종회회의록』, 조계종출판부, 2001.
- 동대칠십년사편집위원회, 『동대칠십년사』, 동국대출판부, 1976.
-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8집,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하, 신문관, 1918.
- 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통계편, 고려한림원, 1993.
- 김경집, 「이영재의 불교혁신사상 연구」, 『한국불교학』 제20집, 한국불교학회, 1995.
- \_\_\_\_\_, 「권상로의 개혁론 연구」, 『한국불교학』 제35집, 한국불교학회, 1999.
- 김달생, 「홍법강원에 대하여」, 『홍법우』 제1집, 홍법강우회, 1938.
- 남도영, 「한국 사원교육제도(상)」, 『역사교육』 27, 역사교육연구회, 1980.
- \_\_\_\_\_, 「구한말의 명진학교」, 『역사학보』 제90집, 역사학회, 1981.
- 봉선사종무소, 「강원 경영자 측으로서 학인에의 기대」, 『홍법우』 제1집, 홍법강우회, 1938.
- 불교재건위원회, 「불교재건위원회 회의 기록」, 『불교정화분쟁자료』, 민족사, 1996.
- 송병언, 「홍법우의 사명」, 『홍법우』 제1집, 홍법강우회, 1938.
-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연보」,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집,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 이재복, 「대승불교사상 1」,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권,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 \_\_\_\_\_, 「불교연수원 일요법회 1000회 기념 설교」,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권,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 \_\_\_\_\_, 「불교, 그 진리의 문」,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권,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 \_\_\_\_\_,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법」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집,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 \_\_\_\_\_,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권,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 \_\_\_\_\_, 「해방 40년 불교 무엇이 달라졌나」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권,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 조영암, 「꼭 용봉 이재복 학장」,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8권,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 Abstract

### A Study on Lee Jae-bok's Buddhist Activities and Perception of the Times of the Modern Times

Kim, Kyung-jib  
(Research Professor Dongguk Univ.)

Lee Jae-bok(1918~1991) was born in Gongju, South Chungcheong Province in May 1918. After graduating from elementary school in March 1932, he became a monk at Gapsa Temple in Gyeryongsan Mountain in October.

He received Buddhist education at Gangwon(Traditional Korean Buddhist educational institution) and HyeHwa Colleges(Dongguk University name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In Gangwon, he served as the publisher of a magazine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Korean Buddhism education in Gangwon and the role of scholars.

He was so passionate that he received an excellence award when he graduated from HyeHwa College in 1943. Immediately became a teacher at Gangwon in Seoul and trained younger students.

In 1945, he organized the Chungnam Buddhist Youth Association in Daejeon and became its president. He led a spiritual practice group for a long time and worked to develop Daejeon Buddhism.

In 1957, he published an article titled 'The Direction of Korean Buddhism's Propagation', presenting his views on reform.

Its content is consistent with modern reform ideas. In that respect, it can be said that it inherits that spirit.

In addition, he worked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Korean Buddhism and publish the Korean Tripitaka. He taught Buddhism to the public through over 3,000 sermons. He preached the law thoroughly based on the scriptures.

He clearly presented the problems of Korean Buddhism through several writings. First, so many Buddhist sects arose. Second, the number of Buddhist practitioners who violate the precepts has increased. Third, there is a lack of Buddhist educational institutions.

Therefore In view of this, he can be evaluated as a pioneer who accurately diagnosed modern Korean Buddhism.

#### Key words

Lee Jae-bok, Gapsa Temple(Korean Buddhist traditional temple), Hongbeop-Gangwon(Traditional Korean Buddhist educational institution), Hyehwa Colleges(Dongguk University name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Chungnam Buddhist Youth Association, Missionary activities, Taegojong(Korean Buddhism Traditional Order)

논문투고일 : '24. 4. 25. 심사완료일 : '24. 5. 22. 게재확정일 : '24. 5. 22.